

목포권

병어 양식 시대 열렸다

목포수산사무소, 인공종묘 1만5천마리 양식 성공
24일 어민에 수정·부화 등 생산기술 전수 설명회

병어도 인공 양식이 가능케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목포수산사무소는 3년여 연구 끝에 병어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전수에 나섰다. 목포수산사무소는 신안군 지도읍에서 지난 2005년부터 병어 양식에 착수해 최근 평균 3cm 이상의 병어 인공종묘 1만5천여 마리

어종으로 분류돼 왔다.

병어는 값이 싸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있으나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 수역 축소와 자원 남획 등으로 매년 잡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

수할 등에 따르면 병어 어획량은 2만4천을 최고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만여를 잡는데 그쳤다.

목포수산사무소가 국내 최초로 새끼병어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특정 어종의 대량 양식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고 어족자원 회복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se@

‘목포평생학습축제’ 31일 광파르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 다채

‘제 3회 목포평생학습축제’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12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 사회적 기업, 학습 동아리 등 55개 홍보관에서는 일정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평생학습 동아리 겨루기 마당에는 58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또 평생학습 체험수기 공모, 성인문해 수강생 백일장 대회, 평생교육자 CEO 인터뷰, 학부모 특강, 여성교향전, 다문화 가족 음식 만들기 경연 등도 열린다.

지난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목포시는 올해에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프로모션 강화 등 평생학습 진흥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청정 해역 '진도 햇김' 본격 출하



청정 해역 진도에서 햇김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지난 23일 의신면 수품 위판장에서 수매를 시작한 물김은 1포대(60kg 기준) 최고 가격인 12만 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12만 원으로 첫날 어민 8명이 27.9t을 수매, 5천3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진도=조재홍

목포로 가는 '고품격 철도여행'

코레일, 지상 크루즈 '해랑' 내달 4일부터 본격 운영
유람선 투어·유달산 관광 등 2주에 한번 목포 경유

목포를 경유하는 국내 고품격 철도여행 시대가 열린다.

코레일은 국내 관광여행 활성화를 위한 레일크루즈인 '해랑' 관광상품을 개발, 오는 11월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해랑'은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로 운행되며 1박 2일 코스는 서울을 출발해 군산~광주~목포~여수, 2박 3일 코스는 서울~군산~목

포~여수~진주~동해~남원을 방문하며 목포에는 2주에 한번씩 화요일에 경유한다.

1박2일 코스 운임은 1인당 50만~60만원, 2박3일은 1인당 70만~90만원이다.

레일크루즈 '해랑'은 객실 6량, 식당차 1량, 전망차 1량 등 8량으로 최대 승객수는 54명이다. 해랑은 레일위를 달리는 '지상의 크루즈'로 불린다.

크루즈 여행이 전 세계 5대양을 누비며 호화 유람선에서 잠을 자고 각종 파티나 휴식을 즐기다가 명소에 내려 관광을 하듯, 열차가 유람선 구실을 한다. 우아하게 꾸며진 열차 침대나 식당칸, 라운지 등에서 쾌적한 휴식을 취하며 밤에는 이등하고 낮에는 미식여행 등 다양한 여정을 소화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CEO출신 등 35명이 탑승한 시운행 열차가 운행돼 이들은 목포역에 도착한 뒤 유람선 투어, 유달산 등 목포의 야경을 감상했다.

목포시는 이들에게 관광 목포를 소개하고 환영행사도 열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 오늘 창원서 국제 철새 심포지엄

해의 전문가 7명 등 참여 서식지 관리 등 소개

신안군이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 경남 창원에서 '2008 국제 철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환경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 10차 랍사르 총회' 개최식 전날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에 대한 철새 모니터링과 도서습지의 보전 관리'라는 주제로 7명의 해외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가 철새에 미치는 영향과 아시아

각국의 모니터링 노력, 해당 도서 지방의 서식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특히 기후변화와 철새 이동에 대한 유럽의 생태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와 철새 연구의 방향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심포지엄 참석 전문가들의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랍사르 습지가 있는 신안군 일대 현장을 답사했다.

신안=조완민기자 wncho@

진도 소포마을 '전통 예술' 무대 올랐다

국립 남도국악원, 금요상설 초청 공연 가져

국립 남도국악원은 지난 24일 진도군 소포마을 전통예술을 초청, 무대를 꾸미는 금요상설 공연을 열었다.

이번 초청공연에서는 집에서 정한수를 떠 놓고 성공을 빌던 '비손소리', 한(恨) 타령의 하나로 고단한 삶을 대변하던 '흥그래타령', '베를노래',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 39호 '소포결농악', '소포 강강술래'가 펼쳐졌다.

또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수를 위로하기 위해 밤새워 노래를 풀

어 주고받는 '철야, 다구질소리', '상여소리'와 소포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단가, 심청전이 공연돼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다.

이날 공연에는 마을 주민 한남래, 박병인, 이민석, 주동기, 박금영 등 원로 노인들과 주민 60여 명이 무대에 섰다.

소포 마을 주민들은 강강술래와 소포결농악, 베를노래, 닻베노래, 상여소리, 명다리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전승 유지해 오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Table with 5 columns: Auction No., Lot No., Description, Price, Remarks. Title: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Auction No., Lot No., Description, Price, Remarks. Title: 목포권.

Table with 5 columns: Auction No., Lot No., Description, Price, Remarks. Title: 목포권.